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6년 산사태

주민대피훈련 시행

부안군은 19일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맞아 과거 산사태가 발생했던 보안면 우동리 일대에서 2026년 산사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산사태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마을 주민을 비롯해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변산반도국립공원, 부안군산립조합, 관계 공무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등 70여 명이 참여하여 민·관·경·소방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긴급하게 진행되었으며 △산사태 정보시스템의 예측 정보 수신 △상황 판단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산사태 예보 발령 및 신속한 상황 전파 △주민대피 유도 △부상자 구조 활동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 복구 등 단계별 대응 과정을 현장감 있게 재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진안군, 로컬푸드

교류 특별판매전 개최

부안군은 진안군과의 먹거리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부안-진안 로컬푸드 교류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안군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부안로컬푸드 직매장 분점과 격포점에서 진안로컬푸드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한 진안군에서도 같은 기간 진안로컬푸드 전주 호성점과 진안점에서 부안로컬푸드 농산물과 가공품을 20% 할인 판매할 예정으로, 양 지역 소비자들에게 우수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계획이다.

부안에서 판매되는 주요 품목은 홍삼 가공식품으로, 진안군의 대표 특산물 홍삼 활용한 건강 간식과 건강기능식품이고 진안에서는 부안의 우수 수산물과 농산가공품을 판매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 해리 동호~금평간(국도77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건의

고창군이 2027년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19일 세종시에서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대응 현지 전략회의(2차)'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해리 동호~금평간(국도77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포함한 26개 주요사업(총사업비 2969억 원)에 대해 부처 반응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군은 중앙부처의 예산안이 마감되는 이달말까지 지속적으로 부처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6월부터는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김영식 권한대행은 정부세종청사 방문을 통해 고창군 현안사업이

2027년도 부처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실무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도교통부 이윤우 도로시설안전과장을 만나 해리 동호~금평간(국도77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150억 원)을 건의했다. 이 구간은 노을대교 건립 시 고창군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서해안권 광역 교통망의 핵심축이지만, 도로 폭이 2차선으로 협소하고, 선형 불량으로 도로개선이 시급한 구간이다. 특히 향후 고창종합테마파크,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등이 조성되면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인 도로망 구축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어, 농식품부 강해영 농업정책과장을 만나 서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24억 원)을 건의했다. 고창군은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지난 해 전국 최대 규모인 30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했다. 현재 대신면에 전국 최초로 건립된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를 포함해 총 2개소를 운영 중이나,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태상 수질수생태과장과 면담을 통해 북부지방농공단지 폐수 연계처리시설 확충사업(117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김영식 권한대행은 "고창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주요 현안사업들이 부처 단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중앙부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올해 농민 공익수당 신청 29일 마감

9월 중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정읍시가 총 77억원 규모의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29일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끝으로 마감한다.

기한 안에 접수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아직 서류를 내지 않은 농업인은 서둘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사업은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전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전체 사업비는 77억원 규모로 사비 60%, 도비 40%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민이다.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도내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조건을 충족한다. 양방 농가의 경우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 등록된 끝벌레 일정 규모(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 사육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경영체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1인 경영체는 60만원을 받으며, 2인 이상 경영체부터는 구성원 한 명당 30만원씩 책정돼 3인 경영체라면 총 9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시는 접수 절차가 끝나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 검증과 이행 점검에 나선다. 이어 8월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다가오는 추석 전인 9월 중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출산부터 노후까지 완벽 책임질 것"

출산축하금 첫째 500만원으로 상향·210억원 예산 투입 노인일자리 5000명 확대 공약 발표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고창군수 후보가 사회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현행 출산장려금을 첫째 5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늘리고, 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5000명으로 확대하면서 출산부터 노후까지 고창군이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심덕섭 후보는 지난 민선 8기 임기 중 출산장려금을 첫째 300만원(기존 100만원)까지 인상했고, 산후조리비 200만원 지급과 출산육아용품 판매점 개소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고창의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왔다. 노인복지 분야 역시 '어르신 3대 보건의료 정책(마을주치의사제, 임플란트·틀

니지원, 보건소 진료비 무료), 노인일자리 확충, 경로당 양곡배분 체계 구축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심덕섭 후보는 민선9기 출산 축하금을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2000만원을 거쳐 다섯째 출산시 무려 1억원까지 전면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50억원 규모의 '동지센터(임신·출산·돌봄 원스톱지원) 시설과 365일 24시간 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가동으로 보육 공백을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육발전특구 예산 383억원 전폭 투자 및 강남급 학교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고창 출신 대학생에게 최대 300만 원의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공공임대주택 496세대를 공급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군이 10만원을 매칭해주는 '두배적금'을 가동해 청년 자립을 돕는다.

이외에도 △다자녀 양육비 바꾸쳐 신설 △정책 결정 위원회 여성 참여율 50% 의무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선도적 도입 △호국보훈수당 15만원 파격 인상 △취약계층 집수리 한도 750만원 상향 및 AI 로봇 24시간 케어 등 8개 분야에 걸친 촘촘한 실행 계획을 내놨다. /*고창=김영식 기자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본격 출하 앞뒤

정읍시, 고당도 유지 위해 세심한 관리 당부

정읍시가 지역 대표 특화작목인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의 5월 하순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30헥타르(ha) 규모의 32개 재배 농가에 고당도 유지를 위한 세심한 생육 관리를 당부했다.

정읍 지역의 씨 없는 수박 주요 품종은 흑사랑, 블랙필, 조생흑미 등이다. 보통 1. 2월에 모종을 심어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열매를 맺는다. 이후 5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하한다.

이 수박은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을 자랑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지역 대표 여름 과일로 꼽힌다.

최근 낮 기온 상승으로 비닐하우스 내부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열매의 당도가 떨어지거나 병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시는 출하 전 철저한 품질관리로 명

품 브랜드 이미지를 굳히고자 현장 기술지도에 나섰다.

농가들이 고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수박을 생산하고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요령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과실 비대기에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반면 익어가는 성숙기에는 관수량을 서서히 줄여야 열매 안에 당분이 잘 쌓인다.

질소 성분의 비료 사용을 줄이고 칼륨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당도 향상에 효과적이다.

또한 수박 방향을 주기적으로 돌리면 색깔이 고르게 입혀진다. 기형이거나 갈라진 열매, 병든 과실은 불필요한 양분 소모를 막기 위해 일찍 수

야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투입

총 50명 농촌 현장에 단계적으로 배치... 농가 인력난 해소 총력

정읍시가 올 4월부터 5월까지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하루 단위로 일손을 돕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을 농촌 현장에 단계적으로 배치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은 농가에서 숙소를 직접 제공하기 어렵거나 짧은 기간 인력이 필요할 때 하루 단위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39명을 도입해 1817개 농가에서 5068건의 작업을 도운 데 이어 올해는 50명으로 인원을 늘렸다. 이들은 현재 274개 농가에 파견돼 508건의 일손을 보태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배치한 인력 가운데 21명은 지난해 정읍에서 일했던 우수 근로자다.

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재입국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 29명을 함께 묶어

농작업 효율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작업 시작 3일에서 5일 전 생골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3-538-5554)로 신청하면 된다. 인건비는 한 사람당 하루 11만원이다.

일반적인 시중 인건비보다 저렴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형 사업과 별개로 시는 올해 상반기 법무부 행정심사 협의회를 거쳐 252개 농가에 지원할 계절근로자 1277명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현재 680여 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130여 개 농가에 배치를 마치는 등 인력난 해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